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22 계룡산 동학사

절 가까이 살지만 여유로움 없어



“그냥 동학사지요. 옛날에는 여관 같은 게 저 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내려왔지요.”

대어섯 사람에게 물어서 겨우 얻은 것은 이것 밖에 없다. 손님 많은 곳의 인심이 더 야박하다. 도시에 가까울수록, 손님이 많을수록 말 한마디 불이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 나라 절집 백여 군데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손님 많은 절의 사하촌에서는 정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학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가까운 탓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보니, 저마다 손님 맞이에 바쁘다. 또한 들건 살 손님이 아니다 싶으면 말 대답도 하지 않는다. 사진 찍히는 것도 마다하고, 이를 알려주는 경우도 없다. 절로 향하는 사람은 꽤 있지만, 가게를 들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가지만 가게 주인은 눈길을 말 거는 내게 향하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리 쪽에 있다.

한잔을 곁여 학봉초등학교 근처로 간다. 동학사 아래의 상가들이나 초등학교 인근이나, 행정구역상 지명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속하지만, 상가 지구는 따로 '동학사'라 부르고, 초등학교 근처는 학봉리, 혹은 들이 많다고 하여 석봉리라고 부른다. 이 마을도 절반쯤은 상가다. 한잔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사람이 이종길(65)씨다.

“여기가 석봉, 저 위 동학사, 저 아래가 팔목재, 저 밑이 지석골, 저 쪽 건너 사기수, 그 쪽 너머에 신도안, 다 학봉리.”

“신도안까지요?”

“거기는 아니고.”

마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고, 예전에도 스님들의 속가는 없었다고 한다. 그는 한 가지 특색이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면 자신이 그것을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나고 되묻는다.

몇 사람을 더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도 마을

대전·공주서 가까운 탓에 절 찾는 손님 많아 마을 절반이 상가... '살 손님' 아니면 대회 기피 경내에 일중·여초 형제의 글씨 비교 감상 '재미'

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상가가 많은 탓에 대부분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절 가까이 살지만,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석봉에서 동학사라 불리는 상가 밀집 지역까지는 버스로 두 정거장쯤 된다. 땀방울을 건디는 뱃나무 잎 색이 더 짙어진다. 멀리 보이는 숲속과 암봉의 대비는 절묘하다. 현으로 깊어지는 소나무 숲 사이로도 드러진 암봉은 파르르하게 잘 깎인 스님들의 정수리 같다.

노점상들이 늘어서 있는 게 보인다. 오디, 딸기, 대추, 군밤, 구운 옥수수 등을 판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인지 아예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다. 매표소를 지나 절로 든다. 동학사에 대어섯 번 왔지만, 오후에 온 것은 처음이다. 이른 아침의 동학사도 싱그러웠지만, 오후에 온 동학사도 마을속을 푸르게 물들인다. 수량이 많지 않은 동학사 계곡에 단풍나무나 쪽동백나무 잎의 녹색이 푸죽 푸죽해지는 것만 같다. 쪽동백나무 연두 그들은 성스럽다. 그 그들은 몸을 행구고 마음을 행구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쪽 숲은 일주문이 보인다. 글씨는 지난 2월 타계한 여초 김응현 선생의 작품이다. 동학사에 올 때 마다 나는 여초와 일중의 글씨를 비교해 보는 재미에 빠진다. 일주문 현판의 글씨는 여초가 썼지만, 범

종루의 글씨는 일중 김응현 선생이 썼다. 친 형제이기도 했던 두 사람은 현대 한국 서단의 큰 봉우리로 우뚝 서 있다가, 형인 일중이 지난해에 타계하였고, 뒤이어 여초도 이성을 하직하였다.

사람이 드문 초록 길을 에벌레가 기어가듯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사람들의 바람이 깃들었을 조그만 돌담들, 바람은 사람들의 영원을 흐트리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지나간다. 먼저 보이는 것은 문수암이다. 동학사는 특이하게도 문수암, 길상암을 비롯한 몇 개의 암자와 고려말 삼은을 모신 삼은각, 단종과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숙모전(옛 초혼각), 신라 충신 박제상의 위패를 봉안한 동계사 등의 건물이 나란히 모여 있다. 그런데 어느 절에서나 볼 수 있는 사천왕문과 금강문은 없다.

대웅전에는 동학사에서만 볼 수 있는 문창살 무늬가 있다. 왼쪽으로 부조를 뜯 것 같은 무늬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나의 문짝에 하나의 작품이 새겨져 있다. 문양도 특이한데 문짝마다 다르다. 소나무에 학 두 마리가 새겨진 문양이 맨



문창살 무늬가 독특한 동학사 대웅전.



동학사 경내.



동학사 일주문.

계룡산 도예마을

10여명의 도예가 자생적 도예촌 이뤄
체험코스 각광, 분청사기 축제도 열려



하얀 분청 위에 산화철(검은 색)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인 철화 분청사기. 계룡산 일대는 철화 분청사기의 산지였다. 인근 온천리 학봉리 일대에 무려 120여개의 가마 터가 발견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약 연구 도안을 함께 하던 중누군가의 제안으로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촌장을 맡고 있는 김용운(44·사진)씨가 1993년 가장 먼저 입주하였고, 뒤이어 신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지금은 10여 곳의 공방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의견 충돌도 없다.

“자생적 도예촌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지자체 같은 데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요.” 이곳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공주시에서 시티투어 코스로 넣어 일반인 관광객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체험 관광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 생기면 다 나와서 같이 해요. 저번 토요일에 모여 여자들은 밥 하고, 남자들은 개보수(집) 하고 그랬지요. 풀썩기나 청소 같은 것은 다 공동으로 해요.”

방학이나 주말에는 도예 캠프를 열고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져갈 수도 있다. 도예가의 길을 걸으면서 대회에 출강을 나가기도 하는 김용운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사학을 전공하였던 그는 박물관에서 발굴 유물 복원 작업을 하다가 도자기에 빠지게 된 것. 또한 함께 도자기를 공부하던 부인 팽정화씨를 만나 결혼까지 하였으니, 도자기는 그에게 천직인 셈.

한편 최근 완공한 도예촌 갤러리 개관 기념으로 ‘魚文이 있는 먼기 삼천정’을 7월 28일에 8월 10일까지 연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자신의 운명수와 궁합·전화번호와 궁합·자동차번호와 궁합·날짜로 보는 운명·부동산의 운명 등등 운명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운명록

화제의 신간

해광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승불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줬던 경악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오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 그림 17대 대통령은 누구?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음으로써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사고들..... 8·15광복, 6·25동란, 5·16, 10·26, 12·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음력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대) / Fax. 02-3142-4901

·해광스님 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산원 해광스님> T. 032-665-8472